

기온 신사

오늘날 기온 신사가 자리한 천연 동굴은 예로부터 사람들이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옛날에는 홍수나 전염병이 항구에서 들어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 아부라쓰항의 입구에 있는 이곳은 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장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일본에서는 이러한 재난을 분노한 용신의 소행이라고 여겼습니다. 1924 년에 지역 철도회사 간부의 제안에 따라 동굴 안에 신사를 건립했습니다. 매년 교토에서 기온 축제가 개최되는 야사카 신사의 계열 신사인 기온 신사에서는 폭풍의 신인 스사노오를 모시고 있습니다. 역병과 바다의 분노에서 사람들을 수호해 주는 신으로 여겼던 스사노오는 일본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괴물로 알려진 ‘야마타노오로치’를 퇴치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머리가 8 개인 거대한 뱀 ‘야마타노오로치’를 스사노오가 쓰러뜨리자 뱀의 꼬리에서 검이 나왔는데, 이는 현재 황실의 보물로서 천황 가문에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